

두 개의 공화국 사이에서: 마키아벨리와 귀차르디니 비교연구*

김 경 희 | 성신여자대학교

공화국 내에는 여러 가지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에 기반 해 다양한 공화국 논의가 가능하다. 르네상스기 피렌체에서는 귀족과 인민이 공화국의 중심 세력이었고, 이에 따라 귀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공화국론과 인민에 중심을 두는 공화국론이 경쟁하고 있었다. 귀족이었던 귀차르디니는 인민을 불신한 반면, 인민의 능력을 더 믿었던 마키아벨리는 귀족을 불신했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귀족과 인민은 연대의 대상이지 배제의 대상은 아니다. 독점과 배제보다는 공존의 전략이 공화국론의 핵심사상이다. 공존이 다름을 부정하는 획일적 평등을 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공화국론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마키아벨리와 귀차르디니의 경쟁하는 공화국 논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화국 논의의 다양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마키아벨리, 귀차르디니, 공화국, 인민, 귀족

I. 서론

본 연구는 르네상스 말기 이탈리아의 혼란 속에서 피렌체의 정치개혁을 사소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와 귀차르디니(Francesco Guicciardini)의 공화주의 정치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¹⁾ 마키아벨리와 귀차르디니는 동시대의 인물로 조국 피

* 이 논문(저서)은 2012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2S1A5A8023020).

1) 근대정치사상의 시조로 잘 알려진 마키아벨리에 비해 귀차르디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편이다. 그는 정치사상가라기 보다는 『이탈리아사』(*The history of Italy*)의 저자로 더 잘 알려져 있고, 근대 역사학의 정초를 지은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본 논

렌체의 미래를 같이 걱정하고 의견을 나누었던 친구였다. 물론 두 사람은 그 출신 배경도 달랐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랐다. 마키아벨리가 몰락한 귀족가문 출신이었다면 귀차르디니는 위세를 떨치는 귀족가문 출신이었다.²⁾ 피렌체 공화정에서 공직을 수행하다 메디치가가 복귀한 후 자신의 역할을 찾아 다녔던 마키아벨리에 비해 귀차르디니는 피렌체와 교황청의 높은 직위를 계속 유지했던 인물이었다. 마키아벨리가 인민 친화적이었다면 귀차르디니는 귀족 친화적이었다.

마키아벨리와 귀차르디니는 피렌체의 구체적인 정치를 고민했던 인물들이다. 특히 그들은 1512년 피렌체 공화정이 무너지고 메디치가가 복귀한 이후 피렌체 정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였다. 1512년 이후의 피렌체 정치는 1494년에서 1512년까지 지속된 공화정의 잔재 속에서 사고되어야 했다. 공화정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인민들과 귀족들 그리고 다시 복귀한 메디치가 사이에서 외세의 간섭과 국내 정치의 불안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주요 문제였던 것이다.³⁾ 1494년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파의 집권으로 도입된 피렌체 공화정은 그 이전과는 달리 인민의 대표성이 강화된 체제였다. 하지만 1512년 메디치가가 복귀하고 나서 피렌체 정치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입장이 나뉘게 된다. 첫째는 메디치의 권력을 강화하여 군주정으로 가야한다는 입장, 둘째는 귀족들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귀족정을 주장하는 입장, 셋째는 이전처럼 인민을 정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⁴⁾ 귀족정은 귀차르디니, 인민의 참여는 마키아벨리에 의해 주장된다. 이렇게 1512년 이후의 피렌체 정치는 군주국으로 가야한다는 입장과 공화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별될 수 있다. 후자에서는 귀족 혹은 인민에 의지하는 공화정을 유

문은 그를 당시 구체적인 문제를 고민했던 정치사상가로 파악하고자 한다. 귀차르디니의 사상은 마키아벨리와 비교 속에서 고찰되어 왔다. 정치사상에서는 알베르티니(Rudolf von Albertini 1955), 길버트(Felix Gilbert 1965), 루빈슈타인(Nicolai Rubinstein 1982), 비롤리(Maurizio Viroli 1992), 스킨너(Quentin Skinner 2004), 포콕(J.G.A. Pocock 2010) 그리고 후버(Jurgen Huber 2004) 등을 들 수 있으며, 그의 역사사상에 대한 고찰로는 필립스(Philips 1977) 등 참조. 우리나라 문헌으로는 진원숙(1989) 참조.

- 2) 마키아벨리와 귀차르디니의 일생에 대해서는 각각 리돌피의 책들(Ridolfi 2000; 1968)을 참조.
- 3) 이 시기 피렌체 역사에 대한 개관으로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나제미(Najemy 2006) 13-14장 그리고 버터스(Butters 1985) 참조.
- 4) 이 시기 피렌체 정체논쟁에 대한 훌륭한 설명은 알베르티니(Albertini 1955) 참조

지해야 한다는 입장들이 경쟁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귀차르디니와 마키아벨리의 논의를 두 공화정 간의 긴장관계로 파악할 것이다. 다시 말해 1인 지배로서 군주국이 아닌 인민과 귀족의 공존을 상정하는 공화국에 대한 논의 속에서 귀족을 그 중심으로 강조하는 귀차르디니와 인민에 더 초점을 맞추는 마키아벨리의 입장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공화국 내에는 여러 가지 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 세력에 대한 지지에 기반해 다양한 공화국 논의가 가능하다. 당시 피렌체에서는 귀족과 인민이 공화국을 이루는 중심 세력이었고, 이에 따라 귀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공화국론과 인민에 중심을 두는 공화국론이 경쟁하고 있었다. 귀족을 신뢰했던 귀차르디니는 인민을 불신한 반면, 인민의 능력을 더 믿었던 마키아벨리는 귀족을 믿지 못했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귀족과 인민은 연대의 대상이지 배제의 대상은 아니다. 독점과 배제보다는 공존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공화국론의 핵심사상이다. 물론 공존이 다름을 부정하는 획일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같이 살되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공화국론이 가능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마키아벨리와 귀차르디니의 경쟁하는 공화국 논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화국 논의의 다양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II. 두 개의 공화국론

피렌체는 1434년부터 메디치가의 실질적 지배 아래에 있었다. 하지만 현명했던 코지모 데 메디치(Cosimo de Medici)와 그 후손들에 의해 메디치는 공화정의 형태를 유지시켰었다. 이는 피렌체 시민들이 공화정에 가졌던 애정과 열정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물론 메디치는 공화정의 형태를 유지한 채 그들을 지지하는 귀족가문들을 주요 공직들에 배치하여 권력을 장악해 나갔다. 메디치가의 지배는 ‘위대한’ 로렌초(Lorenzo il magnifico)의 사망 후 그의 아들 피에로 메디치(Piero de Medici)가 피렌체를 이끈 지 2년만인 1494년에 끝나게 된다. 프랑스 왕인 샤를(Charles) 8세의 이탈리아 침공으로 촉발된 위기에 피에로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피렌체를 떠나게 된다. 이후 피렌체는 페라라 출신의 도미니칸 수도사인 사보나롤라의 지도하에 이전보

다 더 민주적인 공화정을 수립하게 된다.⁵⁾

사보나롤라가 수행한 정치개혁의 특징은 그전에는 배제되어 있었던 광범위한 인민층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핵심기구로 ‘대평의회’(Consiglio grande)가 만들어졌다. 아올리 메디치 지배 시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귀족 중심의 위원회들이 폐지되었다. 대평의회에는 피렌체 시민들을 대표하는 삼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올리 공화국의 최고 행정기관인 시노리아(signoria)의 임기를 2개월로 제한하였다. 이는 빠른 순환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공직 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더불어 소수에 의한 권력독점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였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적 개혁을 통해 메디치가와 소수 귀족가문의 지배에 불만을 품었던 피렌체 시민들은 사보나롤라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게 되었다. 반대로 귀족들은 광범위한 시민층의 정치참여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렌체는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그 하나는 사보나롤라를 지지하는 인민층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반대하는 귀족층이다. 사보나롤라가 이룬 피렌체 공화정의 중요한 제도들은 1498년 그의 몰락 이후 약간의 변화를 겪지만 1512년 메디치가가 피렌체에 복귀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메디치가는 복귀 이후 피렌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마키아벨리와 귀차르디니는 여기에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된다. 이 두 사상가들은 갈등과 반목에 놓인 피렌체를 앞에 놓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과거의 공화정을 옹호하는 중·하층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인민들과 메디치의 복귀를 통해 귀족정권의 재확립을 바라는 귀족층 그리고 막 다시 권력을 잡은 메디치가, 이 세 세력의 긴장과 갈등 속에 놓인 피렌체였다.

1. 마키아벨리의 인민 중심의 공화주의

마키아벨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정치적 과제는 반목과 갈등에 기인한 혼란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갈등과 대립은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데서 기인하였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한 공동체의 정치지형을 규정짓는 세력 간의 관계를

5) 사보나롤라의 정치개혁론은 그의 저서(Savonarola 1978) 참조. 아올리 피렌체의 정치상황과 그의 정치사상 등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길버트(Gilbert 1965), 푸어(Fuhr 1985), 웨인스타인(Weinstein 1970), 포콕(Pocock 2010) 등 참조.

중요시 한다. 예컨대 『군주론』(*Il Principe*) 9장에서 그는 모든 공동체를 구성하는 두 가지 계층으로 귀족과 인민을 언급하고 있다.⁶⁾ 그리고 이들의 관계 구성에 따라 군주정, 공화정 그리고 무정부 상태가 나타난다고 보았다(Machiavelli 2008, 68-69). 모든 국가가 인민과 귀족의 두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일반론적 언급은 『로마사 논고』(*Discorsi sopra la prima deca di Tito Livio*, 이하 『논고』)에서도 나타난다. 『논고』 1권 4장 등에서 마키아벨리는 “모든 공화국에는 두 개의 대립된 파벌, 곧 평민의 파벌과 부자의 파벌”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Machiavelli 2003, 86). 하지만 이러한 일반론은 구체적인 역사서술이나 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권력관계와 그에 따른 세력의 중요성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군주론』에서 먼저 언급된다. 로마 황제들이 직면한 어려움으로 귀족과 인민 외의 제3세력으로서 군인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Machiavelli 2008, 129). 황제정 당시 로마는 귀족과 인민 그리고 군인, 이 세 세력의 관계 속에서 정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논고』에서 나타나는 로마 공화정 시기나 『피렌체사』(*Florentine Histories*) 3권 서론 부분에서 언급되는 로마공화정 시기의 주요 세력관계는 인민과 귀족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황제정 시기는 공화국을 제국으로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군인세력이 추가되었던 것이다. 상황에 따른 설명은 『피렌체사』에서도 이어진다. 1300년대 초반부의 피렌체 정치사를 설명하는 2권의 후반부에서 마키아벨리는 귀족과 인민 외의 삼분법을 사용한다. 예컨대 아테네(Athene) 공의 폭정이 이루어질 시기 피렌체의 세력 분화를 귀족(*grandi*), 인민(*popolani*), 그리고 길드조합인(*artefici*)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후 귀족의 지배가 무너지고 인민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그들은 다시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한다. 힘 있는 상층 인민(*popolo potente*), 중간층 인민(*popolo mediocre*), 그리고 하층 인민(*popolo basso*)이 그들이다(Machiavelli 1988, 102-104).

그렇다면 이러한 세력들의 분화와 분열 그리고 대립 속에서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져야 할까? 마키아벨리는 이에 대해 가장 강한 세력에 의지해야 함을 설파하고 있다. 로마 황제정 시기에 군인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하는 『군주론』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⁷⁾ 국가를 구성하는 세력들의 분화와 그들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모든

6) 마키아벨리의 인민과 귀족 개념에 대해서는 보나데오(Bonadeo 1969; 1970) 참조. 아울러 국내 문헌으로는 신철희(2011) 참조

7) “군주는 어느 한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첫 번

국가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를 맡는 이들은 이에 대한 통찰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력들의 구성을 어떻게 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마키아벨리는 가장 강한 세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지적한다. 이들이 바로 인민들이다. 마키아벨리가 인민들에 기반 한 정체를 세워야 함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의 성정에 대한 신뢰, 그들의 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피렌체 현실 때문이다. 우선 귀족들은 지배욕과 야망에 휩싸여 항상 지배하고 억압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인민들은 소유한 재산이나 권력 등이 귀족들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배욕보다는 귀족에게 억압당하고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욕구 즉, 자유에 대한 열망 혹은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는 것이다(Machiavelli 2003, 89; Machiavelli 2008, 68-69). 지배와 억압욕망을 가진 귀족들은 권력과 재물을 탐내기에 음모의 주모자들이며, 혼란과 분란의 선동자들이라는 것이다. “어떤 사물이든 그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가장 적은 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말을 통해 마키아벨리는 귀족보다는 인민들에게 나라와 그 자유를 맡겨야 함을 설파하고 있다(Machiavelli 2003, 89). 그런데 이를 역사상 가장 잘 실현한 나라가 바로 로마공화국이다. 그들은 호민관 제도와 민회 등을 통해 인민들에게 귀족을 견제하고 나라의 법질서와 자유를 지킬 힘을 부여했던 것이다. 이렇게 지배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인민들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신뢰는 그들의 힘과 역량에 대한 인정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우선 인민들의 힘은 그 숫자에서 나온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9장에서 소수의 귀족과 다수의 인민을 대비시키면서 인민들은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들을 적대적으로 만들면 소수의 귀족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말한다(Machiavelli 2008, 70).⁸⁾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인민들이 법질서와 제도 그리고 훈련을 통해 공동체에 복무할 때 그들의 힘은 최적화 된다. 인민의 정치참여와 권력 증대를 통해 그들의 힘을 공동체에 복무토록 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고대 로마였다. 이는 특히 『논고』 2권에 잘 드러나 있다. 로마인들이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로운 정치체제를 통해 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늘어난 인민들의 능력과 힘을

째 일은 다수 집단의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일만큼은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가장 강력한 집단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Machiavelli 2008, 129-130).

8) 『논고』 1권 16장에서도 동일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Machiavelli 2003, 135-136)

활성화 시켜 공동체에 참여시켰던 데 있었다. 위기의 시기에 군사력의 중요성에 특히 관심을 두었던 마키아벨리는 인민들로 충원되고 잘 훈련된 군대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심장으로 파악한다(Machiavelli 2003, 397). 국가의 심장으로서 인민들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로운 정치체제였다. 마키아벨리는 『논고』 2권 2장에서 “왜 인민들 사이에 자유로운 정부에 대한 애착심이 생기든지 알아내기란 아주 쉬운 일”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든지 차별받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유로운 국가 속에서 인민들은 시민이자 군인으로서 조국에 복무할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인민들의 용맹과 힘으로 나타났던 것이다.⁹⁾

그렇다면 피렌체의 현실에서 인민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했을까? 피렌체는 인민이 정치에 참여한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사보나몰라 이후 대평의회에 기반 한 공화정을 겪어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마키아벨리는 『로렌초 사후 피렌체 상황에 대한 논고』(*A Discourse on Remodelling the Government of Florence*)라는 작품 속에서 피렌체 정체구성안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피렌체 정치상황의 전환기에 나온 것이다. 우르비노 공이었던 로렌초 데 메디치(Lorenzo de Medici)의 때 이른 사망 후 피렌체의 지배자였던 줄리오 데 메디치(Giulio de Medici) 추기경과 레오(Leo) 10세 교황은 곤란을 겪게 된다. 성직자인 자신들을 대신해 피렌체와 그 영토를 통치할 인물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들은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피렌체인들에게 의견을 구하는데 그 중 한 명이 마키아벨리였다. 1520년에서 21년경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에서 마키아벨리는 메디치가의 권력을 인정하면서 피렌체의 상황에 충실할 것을 조언한다. 그것은 인민의 힘에 대한 인정과 그들의 정치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정체가 왜 자주 바뀌게 되었는지를 서술한다. 그것은 한 번도 진정한 공화국이거나 군주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피렌체의 구체적인 정체변화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우선 1393년부터 1434년까지 지속되었던 체제는 귀족 지배체제였지만 파당의 난립과 관직을 부적격자들에게 맡기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적고 있다. 아울러 사적 개

9) 인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가능한 자유로운 정체를 통해 힘과 유연성의 국가전략을 추구한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는 김경희(2005) 참조.

인들이 절차와 제도를 무시하고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공직이 무력화되었다. 여기에 인민들이 정치에서 배제됨으로써 온갖 불의가 판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1434년부터는 메디치 정권이 시작되었다. 공화제보다 군주제의 경향을 띠었던 이 정권은 다른 정권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되었는데 그 이유는 인민들의 지지와 더불어 코지모와 그의 손자 로렌초라는 뛰어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정권도 몰락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군주제적 권력에 공화제적 제도와 형식을 유지시켰기 때문이다. 샤를 8세의 이탈리아 침공으로 몰락한 메디치 정권 이후 피렌체에는 공화정이 수립된다. 하지만 이 공화정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제어할 수 없었기에 나약했다고 말한다. 그 결과 공화정에 종신 통령제가 만들어졌고 이는 한 사람에게 정권을 의지하게 하는 효과를 낳게 하였다. 이렇게 기존의 피렌체 정권들을 일별한 후 마키아벨리는 그 정체들이 허약했던 이유를 공공선이 아닌 사익의 추구로 들고 있다. 파당이 난립하여 공공선이 아니라 그들의 안전과 사익만을 추구하였기에 정권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당시 피렌체 정체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가 지적하는 첫 번째 주장은 메디치가의 권력 강화를 옹호하는 주장이다. 코지모 메디치 시기가 좋았으니 그때로 돌아가야 하며 메디치 가문에 더 많은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이 주장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들의 구성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당시는 시민들을 친구들로 가졌지만 지금은 적으로 가지고 있고, 당시는 시민들을 정치에 참여시키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시민들은 자신들에게 더 자유롭게 보이고 더 만족스러운 정체를 발견했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에는 메디치 가문이 일반 시민들과 같이 자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신뢰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메디치는 너무 성장해서 일반 시민들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의 신뢰와 지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부분에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정체 구성안을 언급한다. 그에게 피렌체는 군주제보다는 공화제가 더 적당한 체제였다. 군주제는 시민들 간에 불평등이 지배해야 적당한데 피렌체는 시민들 간의 평등이 더 우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국보다 공화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한다.

우선 마키아벨리는 도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세력에 대해 언급한다. 그것은 상층

(i primi), 중간층(mezzani), 하층(ultimi)이다(Machiavelli 1989, 107). 그리고 이 세력들 각각에 알맞은 제도와 참여의 공간을 제공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마키아벨리는 평등 속의 차이를 언급하고 있다. 피렌체 내에는 시민들 간의 평등이 존재하지만 그들 각각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뜻을 가지고 타인보다 위에 설 자격이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마키아벨리는 기존의 시노리아, 외치와 안보를 관장하는 '8인 위원회'(Otto della pratica) 그리고 법안이 위원회에 가기 전에 시노리아와 같이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12명의 시민'(Dodici buonomini)을 폐지하고 45세 이상의 시민 65명을 선출하여 종신직으로 다음의 직을 맡길 것을 제안한다. 우선 1명의 '정의의 기수'(Gonfaloniere della giustizia), 즉 통령을 선출하고 나머지 64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32명씩 1년간 지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시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존의 시노리아, '8인 위원회' 및 각종 평의회를 수행한다. 이렇게 최고 권위를 수여함으로써 중요한 사람들이 최고 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이전처럼 사적 개인들이 공직에 개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 해 동안 공직을 수행하지 않는 32명의 시민들이 조연 등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최상위층의 인물들로는 메디치가가 신뢰하는 이들이 충원될 수 있다고 마키아벨리는 말한다.

이제 두 번째 세력에 관해 말하자면 이들을 위해 200인 회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 4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160명으로 구성된 대위원회로 나뉜다. 이들 또한 종신직이며 앞의 65인과 함께 국가의 중대사를 심의하고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여기서도 메디치 가문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 최상층과 중간층을 위한 제도에 메디치가가 원하는 사람들을 배치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전권을 가진 특별위원회(Balia) 및 치안을 담당하는 8인 위원회(Eight of Defense)에 자신들의 사람을 언제든지 배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메디치가는 국가의 주요 권력기관들을 자신들이 장악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최상위층과 중간층의 만족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제 남은 것은 나머지 시민들의 전체 대중으로 이루어진 층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돌려주기 위해 1000인 회의장 혹은 최소한 600인 회의장을 재개장해야 함을 주장한다. 인민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는 앞서 언급된 직위들을 제외한 모든 공직들이 배분될 것이며 메디치가의 수장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들에 의해 임명될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광범위한 시민층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정부의

안정적인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위의 회의는 다시 열려야 하는 것이다. 메디치 가문의 적이 인민의 호의와 지지를 얻기 위해 그러한 시도를 하기 전에 미리 자발적으로 대평의회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마키아벨리는 조언하고 있다. 여기에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4개구(區)에서 각각 4명의 대표로 구성된 16명의 인민대표단(Gonfaloniers of the Companies of the People)을 이전처럼 뽑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연임을 되도록 시키지 말아 도시의 좀 더 광범위한 층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며, 앞의 65인 중에서 뽑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인민층에서 충원된 이들은 제비뽑기로 4명의 감독관(Provost)를 뽑아 한 달의 임기를 주어 모두 그 직무를 맡도록 한다. 이들의 임무는 국가 최고 회의와 200인 회의에 참여하여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이들이 불참했을 때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정해야 함을 제안한다(Machiavelli 1989, 111-112).¹⁰⁾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정체구성안이 메디치가의 권력을 사상하고 본다면 그 제도적 측면에서 자유로운 공화국이라고 단언한다. 하지만 메디치가의 줄리오 추기경과 교황이 생존하는 동안은 명백히 군주제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군사력, 사법권 그리고 입법권 등을 메디치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렌체는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정체개혁이 필요하며 그것은 메디치가에 위대한 영광과 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계층을 만족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누구도 두려움이나 야망에 이끌려 정변을 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마키아벨리는 메디치가의 지배라는 현실을 고려해 군주제적 외형을 만들었다. 하지만 제도 자체만을 볼 때는 권력의 독점과 전횡을 제어하며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의사를 대변하는 공화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 소고를 끝내면서 마키아벨리는 스스로 강하게 설 수 있는 정체로서 각 계층을 만족시키는 정치체제가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는 피렌체가 이미 다양한 시민층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공화제 전통으로 인해 한 사람이나 한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군주제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화제 구성에서도 인민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강조된다. 메디치가의 지위를 피렌체에서 확립시켰고 국부(*pater patriae*)라 불린 코지모의 집권이 가능했던 것도 바로 인민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대평의

10) 맥코믹은 이 인민대표단과 감독관의 역할을 로마의 호민관에 비유하며 귀족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인민을 위해 정부에서 일하는 핵심 기관으로 파악하고 있다(McCormick 2011, 103-106).

회를 다시 개원해야 하는 문제 등 피렌체 공화정체 구성의 핵심도 바로 인민의 만족을 얻는 제도의 확립이었다.

이 글은 메디치가의 현실적인 상황과 피렌체의 계층 간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인해 매우 현실적인 저서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피렌체는 로렌초 데 메디치 사망 이후 직계 가문이 끊어진 상황에서 교황과 추기경만이 남은 상황이었다. 여기에 교황 레오 10세는 공화정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이었다. 직접 지배할 적임자가 피렌체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키아벨리는 그들의 생존 기간에 확실한 권력을 부여함으로써 잠정적인 군주제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존기간 동안이었고 그 이후 피렌체는 공화제로 가야했다. 그것을 위해 군주제의 외형 아래 확고한 공화제 제도를 세우기를 원했다. 그 확고함은 각 계층에 그들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고, 무엇보다 광범위한 인민계층을 위한 대평의회의 부활이 중요한 것이었다.

2. 귀차르디니의 귀족 중심의 공화주의

귀족 출신의 귀차르디니는 피렌체의 정치 상황에 대해 마키아벨리와는 다른 해법을 구상했다. 귀차르디니는 메디치가의 지배 하에서 벗어난 공화제에서 대사를 역임했으며, 메디치가 복귀 이후에는 교황령의 총독으로 복무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귀차르디니는 귀족으로서 피렌체 정치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 고민하였다.

귀차르디니는 스페인 대사 시절인 1512년에 『로그로노 논고』(*Discorso di Logrognno*)를 저술한다. 여기서 그는 피렌체의 공화제 정부 구성에 대해 논하고 있다. 공화국의 시민적 삶은 항상 타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파당과 내전으로 인한 도시의 분열은 공화국을 폭군정이나 대중적 무정부제로 변모시킬 수 있다. 이를 제어하고 좋은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법의 지배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화제의 구성을 위해 인민과 귀족의 역할에 맞는 정치참여와 그 제도의 확충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귀차르디니가 자유의 유지를 위해 공화국의 핵심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평의회, 정의의 기수 그리고 원로원이다. 귀차르디니는 공화국의 자유를 위해 핵심적인 기관으로 대평의회를 들고 있다. 그는 대평의회를 ‘정체의 정수’로 표현하고 있다 (Guicciardini 1998, 123). 대평의회는 정치에 참여가능한 시민 모두를 포함한다. 광

범위한 인민층의 정치참여 공간으로서 대평의회에서는 관리의 선출 및 법률안의 통과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귀차르디니는 정치공동체의 공공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일인이나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관리가 선출되면 그들은 국가가 아니라 권력자들을 위해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귀차르디니는 1494년의 대평의회보다 더 확장된 안을 제안하고 있다. 즉 공직에 선출될 자격이 없는 시민들도 대평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공직 선출여부라는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공직에 적격인 사람을 선출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Pocock 2011, 246). 아울러 법률안의 통과 결정권을 대평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물론 법을 제안하고 토론하여 제정하는 것은 소수의 경험 많고 현명한 자들에게 맡겨야 한다. 하지만 찬성이나 반대를 통해 법의 통과를 결정짓는 것은 대평의회에서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포된 법은 그 국가의 모두를 구속하기 때문에 소수가 아닌 모두의 동의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다(Guicciardini 1998, 128). 이렇게 대평의회는 대다수 시민들을 대표하여 국가라는 공적 기관의 운영원리로서 법과 그것에 복무하는 관리들의 공공성을 담보하게 해 주는 자유의 담지자였던 것이다.

귀차르디니는 대평의회를 설명한 이후 좋은 정부의 두 번째 기둥으로서 정의의 기수를 다루고 있다. 시노리아의 주장으로서 정의의 기수는 상황에 따라서 권력을 독점할 수 있으며 폭군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다. 따라서 그 권위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귀차르디니는 국가 중대사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정의의 기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지 잘 알고 있다. 시노리아는 동맹체결, 평화협정, 용병구성 그리고 관료선출 등의 몇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중대사를 처리하고 결정하는 시노리아와 그 시노리아를 장악하는 정의의 기수는 항상 권력을 전횡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폭군화될 수 있는 정의의 기수를 제어하기 위해 귀차르디니는 피렌체에서 예부터 있어왔던 제도를 언급한다. 그것은 임기의 제한이다. 보통 2개월이라는 짧은 임기를 부여함으로써 권력의 전횡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귀차르디니는 종신직을 더 선호한다. 이것은 귀차르디니가 뛰어난 인물의 공명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다. 현명하고 선한 인물이 평생토록 나라를 위해 봉사한다면 그보다 좋을 것은 없기 때문이며, 법과 자유의 틀 내에서 뛰어난 시민들이 추구하고 싶은 단일의 최상위 직위가 있다는 것은 국가의 탁월한 소수 시민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고 국가의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기 때문이다(Guicciardini 1998, 133-134). 이것은 귀족의 명예욕과 그것을 사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민

음이 전제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물론 귀차르디니는 시노리아와 정의의 기수의 업무와 권능에 제도적 제한을 둠으로써 권력의 남용과 독점을 제어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임기의 측면에서는 종신직을 제안함으로써 뛰어난 인물들 즉 귀족들의 야망을 합법적인 제도 내에서 표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제 귀차르디니는 일인과 다수의 사이에서 극단의 위험을 제어할 제도로써 원로원을 설명한다. 원로원은 국가의 현명한 자들과 통치 능력을 구비한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시노리아와 여러 위원회들을 합치면 그 수는 거의 200명에 이른다고 말한다(Guicciardini 1998, 136). 원로원은 그 의원들을 종신직과 선출직의 혼합으로 구성하며 그 업무는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토의와 결정이다. 법률 제정에 있어 원로원은 대평의회에서 최종 통과되기까지 제안과 토론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귀차르디니는 원로원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가감 없는 법률 제안을 강조한다(Guicciardini 1998, 139). 국가 중대사에 대한 공개적 토론을 강조함으로써 소수 권력자에 의한 정보독점과 비밀주의를 막고자 하였다. 아울러 현명한 자들의 뛰어난 자질이 공공에 드러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능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에 합당한 공직에 선출되고 명예를 얻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는 가문이나 가족의 명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동과 능력에 기반하여 명예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무명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뛰어난 사람이 이류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며, 뛰어난 아버지와 가문에서 태어난 이류의 사람이 뛰어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Guicciardini 1998, 143).

『로그로노 논고』에서 귀차르디니는 자유로운 공화국을 위해 세 가지 제도의 완비를 주장한다. 그것은 인민들의 참여공간으로서 대평의회, 뛰어난 인물들의 명예욕을 자극하고 그 능력의 발휘 기회를 부여하는 최고직위로서 정의의 기수, 그리고 두 제도들의 지렛대이자 중재역할을 수행하는 원로원이 그것이다. 그런데 그는 이 저술에서 인민보다 귀족의 역할에 더 강조를 둔다. 물론 인민의 정치참여 공간인 대평의회 의 역할은 자유로운 공화국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대평의회는 귀족의 야심이 권력의 전횡과 사익 추구로 변하는 것을 제어하는 역할로서 중요한 것이었다. 종신직 정의의 기수나 원로원은 많은 경험과 능력이 뛰어난 엘리트층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귀차르디니는 권력과 부를 축적한 귀족들의 과도제적 경향을 피렌체의 공적 제도를 통해 제어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야심과 능력은 인정하되 그 과도화와 극단화가 문제였던 것이다(Pocock 2011, 255).

귀차르디니는 1521년과 24년 사이에 『피렌체 정부에 관한 대화』(*Dialogue on the Government of Florence*)를 저술한다. 이 책은 세 명의 젊은 귀족들인 피에로 카포니(Piero Capponi), 파올안토니오 소데리니(Pagolantonio Soderini), 그리고 피에로 귀차르디니(Piero Guicciardini)와 베르나르도 델 네로(Bernardo del Nero)의 가상대화로 이루어져 있다.¹¹⁾ 두 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1494년 이후에 세워진 정부와 그 이전의 메디치 지배시기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 두 번째 부분은 앞서의 역사적 분석에 이어 좋은 정부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를 논하고 있다.

귀차르디니는 1494년 이전의 메디치 지배와 그 이후 사보나롤라에 의해 도입된 인민정부, 둘 다를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일인 지배체제의 경우 폭군정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으며, 인민정부의 경우 무질서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전자 즉 메디치 정권이 인민정권보다 낫다고 본다. 우선 카포니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통해 정부를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되는가, 둘째는 명예있는 정무직과 봉급이 지급되는 공직이 어떻게 잘 분배되는가 그리고 셋째는 외치, 즉 영토의 방어와 확장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이다. 첫째 요소에서 메디치가는 대체로 파벌주의와 온정주의에 경도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고자 하였다. 친소에 따라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정무직과 공직의 배분뿐만 아니라 외교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관철되었다. 따라서 국가업무에 광범위한 시민층과 적격자가 배제되고 부적격자가 공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외교도 메디치가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최우선시 되었다는 것이다(Guicciardini 1994, 24-30). 이어 소데리니는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능력 발휘를 막아 그들의 시민적 덕성을 고사시켰고, 여타 시민들에 대한 두려움이 시민군의 형성을 막았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델 네로는 소수 뛰어난 시민들의 야망이 자유라는 모토를 이용하며, 결국 최선의 정체는 1인 지배체제라고 반박한다. 그에 의하면 1인 지배체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주로 명예욕이 강한 소수의 시민들인데 이들은 자유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이

11) 소데리니와 카포니는 1494년 메디치 지배를 전복시킨 핵심 인물들에 속하였다. 귀차르디니는 프란체스코 귀차르디니의 아버지였으며, 델 네로는 메디치가의 영향력 있는 조언자들 중 하나였다. 델 네로는 1497년 메디치가의 복귀 음모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사형에 처해진 인물이다. 청년들의 질문에 주로 대답하는 델 네로가 귀차르디니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들이 말하는 자유는 탐욕과 야망을 숨기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개인 자유보다는 정치적 자유를 말한다. 인간의 지배욕과 탁월성 욕구는 자연적이기에 자유보다는 탁월함을 더 추구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인민들은 공직 획득기회의 희소성 때문에 억압받지 않기 위해 자유를 목표로 한다. 그들에게는 평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간은 평등을 얻으면 곧 위대함과 탁월함을 추구한다. 폭군에 반대하는 자들 중 오직 소수만이 국가의 자유를 위한 애정에 의해 움직이지, 대부분은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텔 네로는 자유라는 단어에 속지 말 것을 촉구하며, 특히 당시처럼 타락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한다. 따라서 소수보다는 1인에 의해 지배되는 체제가 더 낫고, 이는 피치자들의 이익을 위해 더 좋다는 것이다(Guicciardini 1994, 35-39).¹²⁾ 이런 주장에 기대어 텔 네로는 메디치 지배와 민중정부를 비교하며 전자가 후자보다 더 나았음을 주장한다.

이 주장의 핵심은 인민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이는 인민정부의 핵심기관으로 설립된 대평의회를 언급하는데서 드러난다. 여기서는 모든 공직자들을 선출하도록 하였는데 인민들은 그들의 능력을 잘 판단할 수도 그리고 주의 깊게 평가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들은 좋게 보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쉽게 속는다는 것이다(Guicciardini 1994, 42). 반면 1인 지배체제에서는 뛰어난을 구별할 수 있으며, 지배자만 현명하다면 그는 뛰어난게 행동할 것이다. 결국 그는 메디치가와 인민정부를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메디치 시기에 관직들이 무지보다는 순전히 나쁨으로 인해 부적격자들에게 돌아갔다면, 인민정부는 후자보다는 전자로 인해 그럴 것이다. 따라서 인민들은 메디치 시기보다 더 자주 실수를 범할 것이며, 공익에 더 해로울 것이다. (...) 무지는 한계나 법칙 없이 맹목적이며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지한 자보다는 악한 자와 상대하는 것이 종종 더 낫다는 경구가 있는 것이다(Guicciardini 1994, 44-45).

앞서 언급한 정부의 세 가지 주요 요소인 정의, 공직배분 그리고 외치와 관련해 서 메디치 가는 그의 친구들을 제외한 시민들의 대부분을 배제했기에 첫 번째 불의

12) 텔 네로는 소데리니의 말에 결과주의적인 관점으로 대답하는데 공직자들은 지배하는 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배받는 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Guicciardini 1994, 40).

(不義) 부분에서 인민보다 더 큰 잘못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격이 없거나 선하지도 않는 이들에 대한 평가나 보상 부분에서는 능력보다는 온정주의에 입각한 메디치보다 인민들이 더 큰 실수를 할 것이다. 아울러 외치에서도 일사분란한 메디치 정권이 판단에 약하고 결단이 늦는 인민정부보다 더 낫다고 결론짓는다. 사람은 무지와 악의에 의해 실수를 저지르는데 후자보다는 전자가 훨씬 해롭다는 것이다(Guicciardini 1994, 53). 물론 이것은 메디치 지배가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소비, 친구들을 위한 지출, 사적 이익의 추구 등, 그들의 나쁜 정치를 지적하는 것은 귀차르디니의 저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인민정부는 질서와 강한 지도자의 부재 그리고 인민의 무지 등으로 훨씬 해롭다는 것이다.¹³⁾

귀차르디니는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정체구상을 2권에서 전개한다. 그는 피렌체가 그 본성상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자유를 좋아해도 그것을 도입할 수 없다. 이는 인민들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인민정부가 도입되어 인민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한다면 무정부 상태로 가게 되고 이는 질서의 파괴자이자 자유의 적이 되어 더 위험한 폭군정으로 변하게 된다고 말한다(Guicciardini 1994, 95-97). 인민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조직되고 정비되는 것이 핵심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 귀차르디니는 1인 지배체제, 소수 지배체제 그리고 인민지배체제의 장점을 담보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그 구체적 기관들로 종신 정의의 기수, 원로원 그리고 대평의회를 제시한다.

인민정부의 기초이자 그 심장으로서 대평의회는 인민들의 정치참여가 보장되는 곳이다. 하지만 그 기능은 엄격히 제한된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의 배분이 결정되고, 법률안이 통과되는 곳이다.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숙고의 공간으로서 인민의 모임은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 이유는 상대적 평등이 아니라 절대적 평등만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공무에 참여하고 일정기간 관직을 부여받는 체제에서 정부는 정의롭지 못한데, 그 이유는 인간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많은 경험과 깊은 지혜가 필요한 숙의보다는 공동체를 이루는 다수가 모여 그 정당성을 확정짓는 동의를 이루어진다.

정의의 기수는 인민정부에서처럼 임기가 짧으면 책임성과 전문성이 부족해질 뿐만

13) 아울러 귀차르디니는 로렌초 메디치의 근면과 수완 등을 칭송하며 온건한 폭군으로서 최소한의 악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Guicciardini 1994, 72-74).

아니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는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예외적 권력을 사용하는 독재자가 아니다. 단지 도시 행정장관들의 지도자로서 종신 정의의 기수일 뿐이었다. 고대 로마나 다른 나라들처럼 복수의 정의의 기수를 두거나 2개월을 늘린 1년이나 3년의 임기를 주자는 대안은 반박된다. 복수의 경우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반목과 대립을 통해 결정을 미루고 혼란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며, 조금 늘린 임기는 재임을 위해 비합법적 행동의 유혹을 받거나 인민들의 지지만을 받기 위한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신직에 대한 두려움은 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그 권위가 항상 제한적이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정의의 기수는 행정장관 협의체인 시노리아의 의장일 뿐이지 군왕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종신직 정의의 기수라는 직위를 통해 뛰어난 시민들이 그들의 능력을 더 발휘하고 경쟁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공선에 복무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종신직을 통해 안정적인 공무수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사익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복무할 수 있는 것이다(Guicciardini 1994, 105-108).

이제 정부를 어깨에 짊어질 핵심 제도로서 ‘150인 평의회’가 제시된다. 이는 고대 로마에서는 원로원으로 불렸던 것으로 1498년에 ‘80인 평의회’로 확립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귀차르디니는 이들이 처음에는 6개월의 임기로 선임되었던 것을 종신 평의회로 확장시키며, 그 숫자도 확대시키고 있다. 이들은 국가대사에 대한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시 말해 평화, 협약, 동맹 그리고 전쟁 같은 모든 중요한 일들을 토론해야 하며, 매일의 정책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기에 용병군대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대평의회로 가기 전의 새로운 법과 규정들에 동의해야 하며, 외교 대사의 선출 등도 담당해야 한다.¹⁴⁾ 귀차르디니는 이 제도를 원로원이라 부르길 소망하며, 도시의 복지를 위해 세 가지 좋은 결과를 산출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중요한 숙의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인민의 자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종신 정의의 기수가 취할 지도 모르는 과도한 권력을 제어한다는 것이다. 원로원은 ‘중간 평의회’로서 참주제와 인민의 방종사이에서 절제하는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셋째는 가장 능력 있고 최선의 자질을 지닌 시민들에게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만족시키는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14) 물론 귀차르디니는 지속적인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 군사계약과 전쟁 및 평화 조약 등을 다루는 특별 기구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 ‘10인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을 지적한다(Guicciardini 1994, 113).

다.

이렇게 구성된 도시는 여러 지절로 구성된 하나의 몸체가 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이 불화와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란은 능력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불행한 엘리트들에게서 유래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도시의 기반이 평등일지라도 여기서는 시민들의 서로 다른 지능, 덕 그리고 능력에 따라 차별적 지위를 향유하는 것이 방해받지 않기 때문이다(Guicciardini 1994, 112-115).

귀차르디니는 명예욕의 자연스러움을 인정하며 능력이 인정받고 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능력있는 자들로서 귀족들의 정치참여와 그 기관으로 원로원을 높이 평가했던 것이다. 하지만 귀족들의 권력욕에 내재하는 과도함의 경향 또한 잘 알고 있었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귀차르디니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제안한다. 그 중 하나가 형사제도와 관련해 도시의 정의를 다루는 ‘8인 위원회’의 선출을 원로원이 아닌 대평의회에 맡긴 것이다. 또한 최고 권력으로서 정의의 기수를 선출할 때 인민과 원로원의 동의를 모두 구하게 하였다.¹⁵⁾

귀차르디니는 메디치가의 1인 지배체제에서 나타나는 폭군정의 경향과 인민정부 속에서 나타나는 무정부적 상황을 비판하였다. 전자는 온정주의와 배타적인 사익추구 속에서 정치를 사사화시킨다. 후자는 인민들의 무지와 혼란 속에서 정치를 실종시킨다. 귀차르디니는 권력의 독점 속에서 배제와 사사화의 정치가 일어나는 것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대평의회를 통해 인민을 포용하고, 종신 정의의 기수를 통해 정부의 중심을 잡고자 하였다. 여기에 이 두 기관을 떠받치고 정부의 중심을 잡는 기관으로 원로원을 상정하였다. 뛰어난 이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그들의 경험을 공공선에 복무시켜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15) 귀차르디니는 자유공화국의 야망있는 자들이 권력을 추구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인민의지지이고, 다른 하나는 원로원 통해서 도달하는 것이다. 그 어느 쪽이나 한쪽에만 의지하게 되면 부정의와 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민과 원로원의 동의를 모두 구해 각각에 의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Guicciardini 1994, 128-131).

III. 인민의 힘과 귀족의 지혜 사이에서

마키아벨리와 귀차르디니는 피렌체의 위기 속에서 정치를 사고하였다. 외세의 침입을 불러온 내부의 반목과 혼란은 협동보다는 대결과 배제로 점철된 국가를 어떻게 새롭게 구성하는가의 문제로 인도하였다.

우선, 다양한 세력 간의 관계 속에서 국가가 구성된다는 생각은 두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으며, 어느 한 세력의 절대적 우위 하에 타 세력의 배제는 끝없는 투쟁과 혼란을 가져 온다고 보았다. 이런 의미에서 두 사람은 다수 시민의 정치참여가 배제된 1인 지배체제보다는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 공화국을 옹호한다. 하지만 어떤 공화국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인다.

마키아벨리와 귀차르디니는 국가라는 한 몸체는 다양한 부분, 즉 세력집단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그들은 귀족과 인민이다. 마키아벨리는 인민을, 귀차르디니는 귀족을 더 신뢰한다. 마키아벨리에게 인민은 다수를 차지하며 야망보다는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수호자로 더 적격이다. 반면 귀족은 지배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민에게는 억압을, 정치공동체에는 끊임없는 음모와 반란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귀차르디니는 인민의 무지와 무질서 그리고 무절제 등을 비판한다. 반면 귀족들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절제 등을 칭송한다.¹⁶⁾ 이러한 배경 아래 마키아벨리는 인민의 정치참여와 그들을 보호하는 제도로서 로마의 호민관과 피렌체의 대평의회를 옹호했다. 반면 귀차르디니는 원로원을 더 중요한 기관으로 본다. 그는 마키아벨리의 로마 해석, 특히 귀족과 인민의 갈등 및 호민관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비판한다.

마키아벨리에게 인민은 국가의 심장으로 그들의 참여와 무장을 통해서만이 국가가 강력해질 수 있다(Machiavelli 2003, 396). 인민을 중대한 일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인민들에게 그들의 야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Machiavelli 2003, 87). 이는 인민의 힘과 더불어 그들의 판단력 또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마키아벨리는 “군주처럼 조언을 받을 수 있다면 인민은 군주보다 잘못을 덜 저지른

16) 귀차르디니는 그가 말년에 쓴 『회상록』(Ricordi)에서도 인민을 “제 정신이 아닌 광폭한 피조물이자 끝없는 실수들과 혼동들로 가득 차 있으며 판단력과 존중 그리고 안정감이 없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Guicciardini 1965a, 37).

다.”라고 말한다(Machiavelli 2003, 546). 잘 정비된 법과 제도 속에 통치하는 인민이 군주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Machiavelli 2003, 250-253). 반면 귀족은 거만하고 오만하기에 그들에게 통치를 맡기면 공화국에 호의적이지 않다: “많은 귀족들이 있는 지역에 공화국을 건설하고자 시도하는 자는 먼저 귀족들을 모두 일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Machiavelli 2003, 242).

귀차르디니는 인민들을 불신한다. 그는 『마키아벨리의 「논고」에 대한 고찰』(*Considerations on the 'Discourses' of Machiavelli*)이라는 글을 통해 마키아벨리의 인민 중심의 로마 해석을 비판한다. 인민들은 다수이기 때문에 의견의 충돌과 혼란만이 있으며, 합리적인 논의나 결정 그리고 결단 있는 행동 등에 모두 취약하다는 것이다. 반면 소수인 귀족들은 통일성, 능력 그리고 효율성 등에서 훨씬 더 낫다고 말한다(Guicciardini 1965b, 104). 때문에 귀차르디니는 마키아벨리가 칭송한 로마의 호민관 제도를 비판한다. 호민관을 통해 인민을 보호하고 인민과 귀족 간의 갈등이 로마의 자유와 힘을 증진시켰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호민관은 귀족을 제어했음지는 몰라도 인민의 방종은 제어할 수 없었고, 귀족과 인민 간의 갈등과 혼란으로 로마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민들은 무지하고, 혼란스럽고 많은 나쁜 성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복시키고 파괴할 뿐인 반면, 귀족들은 위대한 지혜와 좋은 성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치에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Guicciardini 1965b, 68-71).¹⁷⁾

자유에 대한 이해에서도 이들은 서로 달랐다. 마키아벨리의 인민에 대한 신뢰는 자유에서 정치참여의 의미를 강조한다. 반면 귀차르디니는 참여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자유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본다. 왜냐하면 자유와 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없는 인민은 그것을 남용하여 혼란만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능력 있는 귀족들이 법제도를 완비하여 인민들을 억압으로부터 보호하는 소극적 의미의 자유를 강조한다.¹⁸⁾

인민에 의한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마키아벨리는 따라서 형식적 평등을 더 강조하고, 능력에 따른 역할과 대가를 강조하는 귀차르디니는 실질적이며 차별적 평등을 더

17) 로마를 모범으로 삼았던 마키아벨리에 반해 귀차르디니는 베네치아를 모범으로 삼았다. 베네치아 정치는 피렌체 시민들의 정치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대해서는 길버트(Gilbert 1968) 참조.

18) 이런 의미에서 뮌클러는 귀차르디니를 초기자유주의자로 묘사한다(Münkler 2000).

선호한다. 마키아벨리는 “부패나 자유로운 삶에 대한 자질의 결여는 도시에 존재하는 불평등으로부터 유래한다.”라고 말한다(Machiavelli 2003, 141). 또한 독일의 도시 정부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 이유는 시민들 사이에 유지되는 “완전한 평등”에 기인한다고 말한다(Machiavelli 2003, 240). 국가는 부유한 대신 시민들은 가난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난이나 가문의 좋고 나쁨이 능력 있는 인재가 지위나 명예를 얻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인민이건 귀족이건 능력이 있으면 출세가 보장되는 자유롭고 평등한 국가가 마련되어야 능력의 계발과 공동체에의 복무가 보장되어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의 기반으로서 평등을 강조하면서 인민도 귀족과 마찬가지로 역량이 있다는 믿음에 기반 한 것이다.¹⁹⁾

반면 귀차르디니는 인민의 통치는 획일적인 평등을 강조하고 능력 있는 자를 의심한다고 비판한다(Gucciardini 1994, 44). 무능력한 인민의 지배는 혼란과 무질서를 낳을 뿐이다. 반면 귀족들은 자기절제와 경륜 등에 기반 한 자기 성찰적 지혜를 가지고 있다.²⁰⁾ 능력에 따른 차별적 대우와 인정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할 공간의 제공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부자를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고 본다. 부자는 소중히 대우해야 할 대상이지 파괴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Gucciardini 1994, 49). 인민은 자유를 지킬 수도 없고 오히려 그 파괴자일 뿐이며, 귀족이 그 수호자로 적합하다는 것이다.

귀차르디니가 귀족의 야망이 권력의 독점과 사익의 배타적 추구로 흐를 수 있음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귀족의 명예욕이 잘 발휘되어 공적 질서의 유지와 공동선의 추구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그는 법제도의 확립과 귀족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피렌체 귀족들은 과두제를 옹호하고 능력보다는 운 즉, 가문과 부에 의존하려 하였고, 이것이 그들을 부패시키고 통치에 무능력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에 귀차르디니는 귀족들의 역량을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하였고, 그것은 중

19) 마키아벨리(Machiavelli 1988)는 『피렌체사』(*Florentine Histories*) 3권 16, 17절에서 1378년 양모 노동자들의 반란인 치옴피난의 지도자로서 미켈레 디 란도(Michele di Lando)를 칭송하고 있다. 하층민이었던 양모 소모공(梳毛工)인 디 란도는 치옴피난의 지도자가 되어 권력을 잡았지만 하층 인민들의 오만을 제어하고 공동선을 추구했다라고 마키아벨리는 평가하고 있다.

20) 귀차르디니에게는 자유가 두 가지 의미 - 즉, 참여와 법의 우위로 나타난다(Gucciardini 1994, 17). 이에 대해서는 포콕(Pocock 2010) 385쪽 참조.

신 정의의 기수나 원로원 같은 명예추구 공간의 공적 제도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²¹⁾

이렇게 볼 때 마키아벨리나 귀차르디니는 정치의 핵심 문제를 공적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데서 찾았다. 그런데 그 원인은 서로 다른 데 있다고 보았다. 마키아벨리는 귀족의 파당화로 정치가 사사화되었고, 귀차르디니는 인민의 무경험과 무능력으로 정치가 실종되었다고 보았다. 피렌체의 이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두 사람은 귀족과 인민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어느 한쪽이 권력을 독점하고 타인을 배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마키아벨리는 인민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귀족을 제어하고 그들의 힘을 국가에 응집시키려 하였다. 귀차르디니는 인민의 형식적 참여만 허용한 채, 귀족이 주도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꾀하려 하였다. 마키아벨리가 갈등의 적극적 인정을 통해 인민의 힘을 국가에 응축시켜 역동적 힘으로 표출시키려 했다면, 귀차르디니는 귀족의 지혜를 통해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려 했던 것이다.

IV. 결론

마키아벨리와 귀차르디니는 피렌체 정치의 문제를 귀족의 과도한 권력욕 그리고 인민의 무지와 자의에서 찾았다. 이는 정치를 사사화시키고 정치를 실종시켜 혼란과 무력함만을 낳았다. 이의 극복을 위해 인민과 귀족들의 공치(共治)로서 공화국이 가장 좋은 체제라고 보았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귀족을, 귀차르디니는 인민을 신뢰할 수 없었다. 물론 양자는 귀족과 인민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 세력임을 인정하고 이들의 정치적 공간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것이 독점과 배제의 정치를 반대하는 공화국의 핵심이념인 것이다. 공화국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존재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공존을 꾀하는 정치체제이다. 이는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한 생존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권력이 독점되어 배타적으로 권력자(층)만의 사익이 추구 되면 정치는 사사화되고 공공질서와 법체계는 무력화 되어 몰락의 위기에 처하기 때

21) 포콕은 귀차르디니의 이런 사고를 과도적이 아니라 귀족적이라고 표현한다(Pocock 2010, 253). 아울러 귀차르디니의 능력주의와 그에 따른 반부패와 반사치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는 포콕(Pocock 2010, 256-257) 참조.

문이다. 귀족과 인민 중 어느 한쪽도 배제하지 않으려는 사고는 이런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누가 핵심세력이고, 어떤 공화국이어야 하는지는 서로 달랐다.

마키아벨리는 인민의 역량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에 복무할 때 공공의 질서와 자유는 유지되고 국가의 힘은 강화된다고 보았다. 귀차르디니는 귀족의 경험과 지혜가 그들의 명예욕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 속에서 활성화될 때 좀 더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국가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았다. 마키아벨리는 귀족과 인민이 서로 다른 계층과 세력이지만 같은 능력을 지닐 수 있음을 주장했다면, 귀차르디니는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임을 강조하지만 서로 다른 능력 속에 다른 대우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키아벨리와 귀차르디니를 통해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공화국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이 둘은 하나의 국가를 위해 경쟁하고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 인민의 자의적 지배욕이 강화되어 혼란의 기미가 보일 때, 귀족의 지혜가 발휘되어야 하며, 귀족의 권력독점욕과 지배욕이 강화될 때, 인민은 그것을 제어해야 한다. 이는 ‘공존’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준다. 공동체의 주요 구성세력들인 인민과 귀족의 서로 다른 능력에 대한 강조는 어느 한 세력의 능력이 아니라, 두 세력 모두의 역량이 국가를 위해 중요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격랑 속에서 빈부격차와 계층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요즘, 공존보다는 독자생존의 요구가 절박해지고 있다. 힘든 세상에서 남을 배려할 여유도 없어지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의 발달로 동료 시민들과 공동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혼자만의 출세가 지상과제가 되었다. 아울러 빈익빈부익부현상은 능력이 아니라 출생에 의해 출세가 결정되는 전근대적 현상을 복귀시키고 있다. 공화국의 이념은 독자생존과 정치의 사사화가 초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이는 개인과 공동체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넉넉한 자유로운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서로가 필요한 것이고, 서로의 능력이 다르기에 서로 도와야 공생공영(共生共榮)할 수 있는 것이다. 부와 권력의 독점과 배제는 무관심과 분노 그리고 미움을 확대재생산한다. 그 결과는 분열과 대립으로 인한 혼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을 통해 공존(共存)과 공영(共榮)의 기예를 발휘하고자 했던 공화국의 이념이 필요한 것이다.

투고일: 2016년 1월 5일

심사일: 2016년 2월 1일

참고문헌

- 김경희. 2005. “마키아벨리의 국가전략: ‘저변이 넓은 정체’(governo largo)에 기반 한 힘과 유연성의 전략.” 『정치사상연구』 11집 1호, 133-151.
- 신철희. 2011. “마키아벨리와 스피노자의 ‘민(民)’ 개념 비교연구: ‘인민형성(people-building)’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진원숙. 1989. “최초의 마키아벨리주의자 귀차르디니.” 『동서문화』 21권, 131-155.
- Albertini, Rudolf von. 1955. *Das florentinische Staatsbewusstsein im Übergang von der Republik zum Prinzipat*. Bern: Francke Verlag.
- Bonadeo, Alfredo. 1969. “The Role of the ‘Grandi’ in the Political World of Machiavelli.” *Studies in the Renaissance* 16, 9-30.
- Bonadeo, Alfredo. 1970. “The Role of the People in the Works and Times of Machiavelli.” *Bibliothèque d’humanisme et renaissance* 32, 351-377.
- Butters, H.C. 1985. *Governors and Government in Early Sixteenth Century Florence 1502-1519*. Oxford: Clarendon Press.
- Fuhr, Andreas. 1985. *Machiavelli und Savonarola: Politische Rationalität und Politische Prophetie*.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 Gilbert, Felix. 1965. *Machiavelli and Guicciardini, Politics and History in the Sixteenth Century Florence*. Princeton/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ilbert, Felix. 1968. “The Venetian Constitution on Florentine Political Thought.” In Nicolai Rubinstein, ed. *Florentine Studies. Politics and Society in Renaissance Florence*, 463-500. London: Faber and Faber.
- Guicciardini, Francesco. 1965a. “Ricordi.” In Cecil Grayson ed. and Intro. *Selected Writings*, 1-56.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Guicciardini, Francesco. 1965b. “Considerations on the ‘Discourses’ of Machiavelli.” In Cecil Grayson ed. and Intro. and Margaret Grayson, trans. *Selected Writings*, 57-124.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Guicciardini, Francesco. 1984. *The History of Italy, trans., and ed., with Notes and an Intro. by Sidney Alexand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uicciardini, Francesco. 1994. *Dialogue on the Government of Florence*. ed. and trans. by Alison Brow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uicciardini, Francesco. 1998. "Discorso di Logrogno." In Athanasios Moulakis, eds. *Republican Realism in Renaissance Florence. Francesco Guicciardini's Discorso di Logrogno*, 117-149. Lanham/Boulder/New York/Oxford: Rowman & Littlefield.
- Huber, Jürgen. 2004. *Guicciardinis Kritik an Machiavelli. Streit um Staat, Gesellschaft und Geschichte im frühneuzeitlichen Italien*. Wiesbaden; Deutscher Universitäts-Verlag.
- McCormick, John P. 2011. *Machiavellian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hiavelli, Niccolò. 1988. *Florentine Histo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chiavelli, Niccolò. 1989. "A Discourse on Remodelling the Government of Florence." *Machiavelli, The Chief Works and Others* 1. Allan Gilbert, trans., 101-115. Durham/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Machiavelli, Niccolò. 강정인 · 안선재 역. 2003. 『로마사 논고』. 서울: 한길사.
- Machiavelli, Niccolò. 강정인 · 김경희 역. 2008. 『군주론』. 서울: 까치출판사.
- Münkler, Herfried. 2000. "Protoliberalismus und Republikanismus in der italienischen Renaissance," Richard Faber, hrsg. *Liberalismus in Geschichte und Gegenwart*, 41-57. Würzburg: Königshausen & Neumann.
- Najemy, John M. 2006. *A History of Florence 1200-1575*. Oxford: Blackwell Publishing.
- Phillips, Mark. 1977. *Francesco Guicciardini: The Historian's Craft*. Toronto and Buffal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Pocock, J.G.A. 곽차섭 옮김. 2010. 『마키아벨리언 모멘트 1』. 파주: 나남.
- Ridolfi, Roberto. 1968. *The Life of Francesco Guicciardini*. Cecil Grayson trans. N/Y: Alfred A. Knopf.
- Ridolfi, Roberto. 곽차섭 옮김. 2000. 『마키아벨리 평전』. 서울: 아카넷.
- Rubinstein, Nicolai. 1982. "Political Theories in the Renaissance." In Andre Chastel et al., eds. *The Renaissance: Essays in Interpretation*, 53-82. London: Methuen Young Books.
- Savonarola, Girolamo. 1978. "Treatise on the Constitution and Government of the City of Florence." In R. N. Watkins, trans. and ed. *Humanism and Liberty: writings on freedom from fifteenth century Florence*, 231-261.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 Skinner, Quentin. 박동천 역. 2004. 『근대정치사상의 토대 1』. 파주: 한길사.

- Viroli, Maurizio. 1992. *From Politics to Reason of State. The Acquisi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Language of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nstein, Donald. 1970. *Savonarola and Florence. Prophecy and Patriotism in the Renaissanc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ABSTRACT

In Between Two Republics: A Comparative Study on Machiavelli and Guicciardini

Kyung-Hee Kim |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re are several forces in a republic, and based on its forces, various discussions on the republic can be taken place. In the Renaissance Florence, the nobility and the people are the central forces of its republic. The republicanism focusing on the people and the aristocratic republicanism were competing. Guicciardini as the noble distrusts the people, Machiavelli who believes more the ability of the people cannot trust the nobility. But the nobility and the people as state members are the target not of exclusion, but of solidarity. The coexistence rather than monopoly and exclusion is a key concept of the republicanism. Coexistence does not mean the uniform equality which denies the differences. So depending on who has a certain capacity and should play more important roles in the republic, we can talk about a variety of republicanism. In this article, the competing republicanism of Machiavelli and Guicciardini will be compared and analysed. This discussion explores the diversity of republicanism more in depth.

Keywords: Machiavelli, Guicciardini, Republic, People, Nobility